

‘영원한 오빠’ 남진 식지 않는 열정...신곡 ‘내 사랑 시’ 발표



가수 남진이 최근 신곡 '내 사랑 시'를 발표했다. (광주일보 자료)

선의를 경쟁하던 나훈아 은퇴 공연 하루 뒤 공개 이목 집중
서정적인 선율에 사랑 담아...“팬들 위해 계속 무대에 설 것”

이 시대 영원한 ‘오빠’, 가수 남진이 최근 신곡 ‘내 사랑 시’를 발표해 화제다. 선의를 경쟁을 펼쳤던 나훈아의 은퇴 공연 ‘라스트 콘서트-고마웠습니다!’가 끝난지 하루 만에 신곡이 공개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65년 ‘서울 플레이보이’로 데뷔한 남진은 ‘동지’, ‘넌과 함께’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국민 가수 반열에 올랐다. 총 60여 편 영화에 출연하는 등 배우로서도 성공 가도를 달렸으며, 특히 작년에는 음악 인생을 담은 영화 ‘오빠, 남진’이 개봉돼 눈길을 끌었다.

변화무쌍한 연예계 활동 중에도 남진의 중심은 언제나 ‘음악’에 닿아 있었다. 팔순을 앞둔 나이지 만 거의 해마다 신곡을 선보일 정도로 노래에 대한 열정은 뜨거웠다.

작년 말에는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목포항 블루스’, ‘다 내탓이요’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중 ‘다 내탓이요’는 남진이 처음 시도한 테크노 사운드 곡으로, 가수로서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보여줬다.

이번 신곡 또한 남진의 역량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시적인 노랫말이 돋보이는 ‘내 사랑 시’는 이별의 감정을 은유적으로 전한다.

“사랑의 시를 쓰다가 웃었다. 미완성 내 사랑이 아파서/ 책상에 던져진 코트를 걸치고 무작정 길 따

라 거리로나갔다/(~)/사랑아 이제는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살아 숨 쉬는 그날까지 당신은 내 영원한 사랑이여”(‘내 사랑 시’ 중에서)

사랑에 실패한 남자의 심정이 시작(詩作) 과정에 담겨 있다. 사랑의 시를 쓰다 어긋나버린 운명을 두고 아파하는 모습은 고통스러운 이별을 암시한다.

남진의 분신으로 생각될 수 있는 ‘나’는 ‘밤’을 붙잡고 술잔을 기울인다는 내용이다. 2000년대 초 품미했던 히트곡 ‘빈잔’과 비교해 들으면 새로운 느낌을 받는다. 무엇보다 구성지면서 호소력이 짙은 곡 소리는 전성기 때인 30대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1~2절 말미에서 반복되는 ‘살아 숨 쉬는 그날까지 당신은 내 영원한 사랑이여’라는 노랫말은 끝나지 않는 사랑을 희원하는 대목이다. ‘사랑’에 빚면 표현이 자연스레 삶에 대한 의지, 꿈, 열정으로 연계돼 울림을 준다.

팬카페 ‘南珍사랑’에는 “오랜만에 남진 오빠의 슬로우(느린) 템포 곡이 발표됐다”며 “오빠(남진)에게 은퇴란 없는 것 같다. 마지막 순간까지 한 소절이라도 더 부르다 죽는 게 대중에게는 최고의 가수인 것 같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남진 가수님의 다양한 장르, 도전을 살펴볼



남진 팬클럽에서 제작한 신곡 '내 사랑 시' 썸네일.

(南珍사랑 제공)

수 있는 곡이라 생각한다”, “전주가 감미롭고 인상적이다”, “남진 오라버니, 요즘 tv 프로그램 현역가 왕2에서 얼굴을 보고 있었는데, 신곡으로 만나게 되어서 기쁘다”는 등 다양한 코멘트가 이어졌다.

팬들의 언급처럼 그동안 남진은 ‘누구든 부르는 곳이 있으면 달려가는 국민가수’였다. 신비주의를 고수하기보다 이웃집 오빠 같은 친근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대중을 만나왔다.

오랜 시간 ‘롱 런’을 하게 된 비결이 무엇이나는

물음에 그는 “나이를 먹을수록 전성기 때의 목소리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며 “그럼에도 목 관리를 비롯해 꾸준한 연습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영원한 ‘소녀 팬’과 남진을 사랑해 주는 이들을 위해 좋은 곡으로 다가가고 싶다”며 “곧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이매리 작가, 국제현대미술축전 ‘사라예보 40주년 윈터축제’ 초청

예술과 연계 전장사 다각도 조명
2월8일부터 보스니아 역사박물관

인류와 문명의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키워드’는 많다. 어떤 이는 ‘날씨’로, 또 어떤 연구자는 ‘식량’으로, 또 어떤 이는 ‘커피’, ‘도시’로 인류의 역사를 분석하고 조명한다.

다양한 키워드와 분석 ‘틀’이 있지만 ‘전쟁’ 또한 인류사를 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다.

특히 ‘전쟁’을 예술과 연계해 인류의 역사를 조명한다면 어떤 느낌과 의미를 환기할까.

전쟁사와 이주사를 접목해 국제현대미술축전에 참여하는 작가가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는 이매리 작가가 ‘사라예보 40주년 윈터축제’ 초청, 개막 특별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개인전을 연다.

‘7천개의 별과 약속의 땅’을 주제로 오는 2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이며 장소는 보스니아 역사박물관을 비롯해 Chaelama Depot 컨템포러리, BKC 보스니아 컬처센터다.

개인전은 40년 전통의 보스니아 국제 평화 축제 ‘사라예보 40주년’ 기념 재단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역사적 관점과 작품들의 의미를 다층적으로 소개한다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작가는 “별간의 화약고”로 비유되는 보스니아 사라예보에서 ‘전쟁’을 키워드로 전시를 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예술공간 집에서 열린 ‘그들은 우리가 된다’ 전이 계기가 됐다. 당시 작가는 ‘고려인마을’을 모티브로 이주사와 전쟁사 등을 확장적으로 시각화했다.

이번 ‘사라예보 개인전’은 한국문예위 2025년 국제협업지원에 선정됐으며, 작가는 사라예보가 갖는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 역사 장소에 주목했다.

작가는 현지에서 영상과 사운드, 드로잉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전쟁사’에 대한 개념적인 작업을 선보이며 다양한 담론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고려인 이주사부터 시작해 ‘에덴동산 쟁탈전’까지 전쟁사를 역류해가며 전쟁이 남긴 상흔과 고통의 시간을 다면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전시는 개인전을 포함해 모두 4개의 파트로 구성돼 있다. 각각의 파트는 오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개인전 이후 프레젠테이션은 2월 9일 진행된다. Chaelama Depot 컨템포러리, 사라예보 시립미술관에서 영상 프레젠테이션과 토론으로 채워진다.

아카이브 프레젠테이션과 2차 리서치는 8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보스니아 국립역사박물관, 사라예보 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마지막 프로그램은 2월 7일부터 12일까지 보스니아 컬처센터에서 진행될 ‘2025 사라예보 40주년 겨울 축제 국제전’. 19개국 49명 작가들이 참여해 국제현대미술의 흐름을 조망한다.

이 작가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명명되는데, 이번 전시는 그러한 관점 하에 인류학



‘7천개의 별과 약속의 땅’

적, 사회학적 시선 등이 결부돼 있다”며 “동시대 이민자들에게 대한 삶과 그들의 정체성을 살펴보는 것에서 나아가 전쟁과 평화에 대한 양분된 시각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전에 진행했던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복지관 행사 모습.

(삼락서예원 제공)

“복을 부르는 입춘방 써드립니다”

삼락서예원, 23일 남구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입춘(올해 2월 3일)은 24절기 중 첫 절기다. 옛 농경사회에서는 입춘을 기점으로 파종 준비를 서두르고 풍년을 기원했다. 특히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의 문구를 써서 붙이는 풍습이 있었다.

입춘을 앞두고 복을 부르는 문구를 써서 붙이는 행사가 진행된다. 삼락서예원(원장 송파이규형) 출신 서예가 7명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광주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복지관의 ‘2024 복을 부르는 입춘방 써주기’ 행사에서 직접 입춘 관련 문구를 쓸 예정이다.

예로부터 입춘은 ‘봄이 오자 행복이 오고 계절 따라 경사가 많다’라고 했다. ‘건양’은 고통할제

취위 후 태양력 사용과 함께 새로운 연호를 채택한 다음부터 써 왔다고 전해온다.

이번 행사에는 김경주, 안정숙, 김신자, 조숙희, 박관애, 이점숙, 이옥자씨 등 7명의 유명 서예가들이 참여한다. ‘입춘대길’ ‘건양다경’ ‘국태민안 가급인족’ ‘개문만복래’ ‘소지황금출’ 등 복을 부르는 문구들을 전통한지에 직접 써서 건강타운 어르신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이점숙 서예가는 “삼락서예원은 매년 입춘을 전후해 이같은 행사를 열어왔다”며 “우리의 전통 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서예강좌를 개설해 많은 서예인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예술의전당, 소통과 여유 전하다

‘포시즌’, ‘포커스’, ‘11시 음악산책’ 그리고 ‘아트위크’ 등...

광주예술의전당(전당장 윤영문·전당)이 올해 상반기 ‘GAC 기획공연’을 발표했다. 마티네 콘서트부터 젊은 세대와 소통을 표방하는 공연, 가족친화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기획으로 채워진다.

먼저 특별기획공연은 6월 11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광주를 찾는다. 노재봉의 ‘디오라마’를 비롯해 프로코피에프 ‘교향곡 제5번’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지휘봉은 전 광주시향 지휘자 홍석원이 잡는다.

동시대 주목받는 예술가들을 초청하는 ‘포시즌’ 첫 무대는 3월 27일 ‘노부스 콰르텟’이 장식한다. 이어 5월 3일 스타인웨이 위너 콘서트 인 코리아 ‘제이든 이직-드류르코’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예술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포커스’도 독자적인 라인업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4월 17일 박종성X김형석 프로젝트 ‘그대, 다시’가 소극장에서 펼쳐질 예정, 5월 9일은 싱어송라이터 닐로 무대로 채워진다.

오전 11시에 마티네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11시 음악산책’은 올해 ‘명작’이라는 주제로 11월



‘디즈니 인 콘서트: Beyond the Magic’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까지 열린다. 책과 그림, 음악을 결합한 인문학 콘서트를 총 8회 공연하며 클래식 연구가이자 피아니스트 안인모가 콘서트 가이드를 맡는다.

4월 29일 제인 오스틴 소설 ‘오만과 편견’을 감상하는 ‘교양의 시절’을 시작으로 여성해방을 다룬 ‘코르셋을 벗어던지고(5월 20일)’, 폴 고갱의 삶을 조망화한 ‘익숙하거나 살레거나(6월 24일)’ 등이 준비돼 있다. 7월 29일에는 ‘그대, 시지프스

상반기 ‘GAC 기획 공연’ 발표
‘포시즌’·‘포커스’·‘아트위크’ 등

여’를 주제로 헤밍웨이와 프리다 칼로 작품을 만난다.

끝으로 ‘아트 위크’ 세대 간 문화 소통을 목표로 하는 가족 뮤지컬-어린이 음악극이다. 5월 2일 전당 대극장에서 ‘디즈니 인 콘서트: Beyond the Magic’을 개최하며 디즈니 명작 애니메이션과 생생한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는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무용협회 신임 회장에 오윤환 씨 선임

지역 무용계에서 활동해 온 오윤환 씨(56·사진)가 최근 대한무용협회 광주광역시지회(이하 광주무용협회) 신임 회장에 선임됐다.

16일 광주무용협회에 따르면 오 씨는 이날 광주예총 방송소리공연장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4년.

조선대 무용과를 졸업한 오 신임회장은 동시대에서 체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국민대, 전북대 등에서 무용을 강의했다. 현재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외래교수로 활동 중.

오 신임회장은 “광주무용협회는 전국 무용계에서 대통령상을 최다 수상해 올 만큼 역량이 있는 단체이기애 어깨가 무겁다”며 “올해 전국무용계에서도 광주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고 싶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전임 회장들의 업적을 토대로 향후

시민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타 지역 협회와 교류를 증진하는 등, 광주무용예술 발전에 전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립발레단 수석단원 및 발레마스터로도 활동했던 오 신임회장은 4년여 전부터 광주로일발레단 예술감독으로 재직하며 안무 및 연출에 힘썼다. 광주예총 예술문화상을 수상했으며 광주무용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한편 1990년 창립된 광주무용협회는 초대회장 박금자 씨에 이어 나인숙 회장 등 주도 아래, 35년간 지역 무용의 뿌리와 역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